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실태조사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정희영(총신대교수)(교육 1-2)
권태경(총신대교수)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세계관이란 사람마다 갖고 있는 하나의 관점, 즉 전제(presupposition)를 말한다. 사이어(James Sire, 1995)는 세계관(a world view)이란 이 세계에 대해 우리가 견지하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세계관이 세계(역사)에 대한 인식 또는 판단의 기본 틀이라는 점에서 안경 혹은 콘택트렌즈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관이란 대상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포괄적인 하나의 구조/framework와 관점(perspective), 혹은 신념체계(belief system)라고 할 수 있다. 이 신념 체계(세계관)에 따라 가치관이 변하게 마련이다.

세계관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으며 그 시대의 문화를 형성하고, 다시 인간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 오늘날의 문화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등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가치관의 혼란이다. 실제로 근대 사회의 세속화와 과학화는 기독교 세계관 정립과 역사 이해에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바른 세계관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권태경, 2003). 특히 아직 자아정체감이 완성되기 이전이며 현대 사회의 특징인 매스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있는 기독교 청소년들의 경우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확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기독교 청소년들의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세계관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에 출판된 세계관에 대한 도서의 경우 주로 대학생을 독자층으로 한 책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필요성과 정당성을 보면 성경적인 세계관 정립이 대학생 보다 청소년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기독교 세계관 확립을 위한 현 주소의 파악, 이에 따른 방향 제시뿐만 아니라 교재개발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기독교 고등학생들의 일반적 배경은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기독교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은 어떠한가?

셋째, 우리나라 기독교 고등학생들의 종교와 사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선행연구는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고찰한 결과,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세계관 교육, 부모, 학생 등 기독교인의 기독교 세계관 조사, 현대 사회의 사상과 조류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 고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기독교세계관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 개발연구와 세계관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기웅(2008)의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초등과학 교재개발 연구: 초등4학년 식물단원을 중심으로, 남신아(2009)의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미술 연구: 운보 김기창의 삶과 회화세계를 중심으로, 문순애(2010)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유아교육과정: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이정미(2008)의 기독교 세계관을 지향하는 기독교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연구, 조신일(2005)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안교육의 본질과 방향, 성은실(2008)의 교회청소년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 연구, 서금옥(2001)의 교회고등부 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교육에 대한 연구” 창조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하희승(2010)의 개혁교회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 개발 연구 등이 있다.

부모와 학생의 기독교인 기독교세계관 조사로는 김명지(2008)의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기독교 부모들의 세계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오광석(2004)의 세계관 학교를 통한 기독교적 세계관 확립과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극복: 원당반석교회를 중심으로, 정기옥(2002)의 기독교 교육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 실태조사: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그리고 한경희(2002)의 교회학교 영유아부의 역할을 위한 기독교인 부모의 세계관 등이 있다.

현대 사회의 사상과 조류 속에서 기독교세계관의 고찰에 대해서는 최정훈(2003)의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 이상환(2009)의 종교다원주의 사회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 개발, 그리고 한진선(2004)의 정통개혁주의 신학에서 본 기독교 세계관 운동평가 등이 있다.

위의 선행연구 가운데 기독교세계관 조사에 대한 연구는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또는 1개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며 대상자도 300명 미만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1993년도에 박남애의 “교회 청소년의 세계관 조사연구: 서울지역 고등학생중심으로” 가 있다. 따라서 보다 넓은 지역과 많은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고등학생 805명이다. 서울을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어 강북에는 서대문구, 용산구, 광진구, 노원구에서 각각 한 교회씩, 그리고 강남에서는 동작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관악구 등에서 각각 한 교회에 100명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경기도에는 서울 인근을 중심으로 인천, 고양시, 안양시, 의정부, 그리고 의왕 등에서 각각 한 교회에 100명씩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서울 강남의 5 곳, 강북의 4 곳, 그리고 서울 인근의 5 곳에서 총 14 교회에 각각 100명씩을 대상으로 14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36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잘못 표기된 49부와 대학생으로 표기된

182부를 제외하여 총 805부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의 기독교세계관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James Sire의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7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배경에 관련된 질문 6문항과 기독교세계관에 관련된 질문 26문항, 그리고 종교 및 사상에 대한 질문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설문지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한 후 고등부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와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한 전공자 2명에게 설문지의 적합성 여부를 자문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를 청소년의 일반적인 배경, 기독교세계관(창조의 시작과 의미,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사망 시에 일어나는 일, 도덕의 기초, 인간 역사의 의미, 종말과 재림, 삶에서 신앙의 표현 등), 그리고 다른 종교 및 사상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으로 통계 처리 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 및 해석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 기독교세계관 실태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배경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실태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

<표 1> 우리나라 청소년 기독교세계관 조사를 위한 일반적인 배경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학년	유효 고등학교 1	361	44.8	44.8	44.8
	고등학교 2	270	33.5	33.5	78.4
	고등학교 3	174	21.6	21.6	100.0
	합계	805	100.0	100.0	
성별	유효 남자	385	47.8	47.9	47.9
	여자	419	52.0	52.1	100.0
	합계	804	99.9	100.0	
	결측	1	.1		
	시스템결측값	805	100.0		
세례	유효 예	657	81.6	81.7	81.7

유무	아니오	147	18.3	18.3	100.0
	합계	804	99.9	100.0	
	결측	1	.1		
	시스템결측값	805	100.0		
	합계				
신앙 경력	유효 1-3년	140	17.4	17.6	17.6
	3-5년	67	8.3	8.4	26.0
	5-10년	52	6.5	6.5	32.6
	10년이상	54	6.7	6.8	39.4
	모태신앙	482	59.9	60.6	100.0
	합계	795	98.8	100.0	
	결측	10	1.2		
	시스템결측값	805	100.0		
교회 크기	유효 100명이하	19	2.4	2.4	2.4
	100-300명	31	3.9	3.9	6.2
	300-500명	13	1.6	1.6	7.8
	500-1000명	53	6.6	6.6	14.4
	1000명이상	688	85.5	85.6	100.0
	합계	804	99.9	100.0	
	결측	1	.1		
	시스템결측값	805	100.0		
교회 교단	유효 장로교	729	90.6	90.7	90.7
	순복음	14	1.7	1.7	92.4
	감리교	9	1.1	1.1	93.5
	침례교	4	.5	.5	94.0
	성결교	6	.7	.7	94.8
	기타	42	5.2	5.2	100.0
	합계	804	99.9	100.0	
	결측 시스템	1	.1		
	결측값	805	100.0		
	합계				

조사 대상자는 고등학교 1학년생이 361명(44.8%), 고등학교 2학년생이 270명(33.5%), 고등학교 3학년생이 174명(21.6%)으로 전체 고등학생의 수는 805명이다. 한편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자가 385명(47.8%)이고, 여자는 419명(52.0%)이었다. 조사 대상자의 세례 유무를 살펴본 결과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657명(81.6%)이고,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147명(18.3%)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대상자들의 신앙경력을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이 모태신앙(59.9%)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사 대상자들이 속한 교회의 크기는 대부분 1,000명 이상의 교회(85.5%)이었다. 조사 대상자들의 소속 교단은 장로교가 90.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 우리나라 청소년 기독교세계관 실태

1) 창조의 시작과 의미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2-1>창조의 시작과 의미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하나님의 자존성	유효	전혀아니다	16	2.0	2.0	2.0
		아니다	42	5.2	5.2	7.2
		잘모르겠다	117	14.5	14.5	21.7
		그렇다	273	33.9	33.9	55.7
		매우그렇다	357	44.3	44.3	100.0
		합계	805	100.0	100.0	
세상의 시작	유효	전혀아니다	7	.9	.9	.9
		아니다	14	1.7	1.7	2.6
		잘모르겠다	65	8.1	8.1	10.7
		그렇다	264	32.8	32.8	43.5
		매우그렇다	455	56.5	56.5	100.0
		합계	805	100.9	100.0	
만물의 근원	유효	전혀아니다	7	.9	.9	.9
		아니다	16	2.0	2.0	2.9
		잘모르겠다	61	7.6	7.6	10.4
		그렇다	246	30.6	30.6	41.0
		매우그렇다	475	59.0	59.0	100.0
		합계	805	100.0	100.0	
창조의 계속성	유효	전혀아니다	14	1.7	1.7	1.7
		아니다	23	2.9	2.9	4.6
		잘모르겠다	152	18.9	18.9	23.5
		그렇다	285	35.4	35.4	58.9
		매우그렇다	331	41.1	41.1	100.0
		합계	805	100.0	100.0	
만물의 존재 목적	유효	전혀아니다	12	1.5	1.5	1.5
		아니다	18	2.2	2.2	3.7
		잘모르겠다	109	13.5	13.6	17.3
		그렇다	285	35.4	35.4	52.7
		매우그렇다	380	47.2	47.3	100.0
		합계	804	99.9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1	.1		
	합계	805	100.0			

태초 전 하나님의 자존성을 묻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홀로 계셨다고 응답한 사람이 ‘그렇다(33.9%)’와 ‘매우

그렇다(44.3%)’ 를 포함하여 전체 78.2%이었다. 반면 ‘잘모르겠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의 대답은 전체 21.7%로 나타났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89.3%)이 ‘그렇다’ 혹은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그렇다’ 가 30.6%, ‘매우 그렇다’ 가 59%로 전체 89.6%가 응답하였다.

창조가 태초에 있었던 일회적 사건이 아닌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331명(41.1%)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했고, 285명(35.4%)의 응답자들이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반면 152명(18.9%)의 응답자들이 ‘잘모르겠다’ 고 대답했으며, 전체 37명(4.6%)의 응답자들이 ‘아니다’ 와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665명(82.6%)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47.2%)’ 와 ‘그렇다(35.4%)’ 라고 대답하였다.

2) 인간의 본질에 대한 현황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2-2> 인간의 본질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인간의 기원	유효 전혀아니다	13	1.6	1.6	1.6
	아니다	31	3.9	3.9	5.5
	잘모르겠다	116	14.4	14.4	19.9
	그렇다	281	34.9	34.9	54.8
	매우그렇다	364	45.2	45.2	100.0
	합계	805	100.0	100.0	
자유 의지	유효 전혀아니다	10	1.2	1.2	1.2
	아니다	13	1.6	1.6	2.9
	잘모르겠다	58	7.2	7.2	10.1
	그렇다	341	42.4	42.4	52.4
	매우그렇다	383	47.6	47.6	100.0
	합계	805	100.0	100.0	

하나님께서 흠으로 인간을 만드셨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364명(45.2%)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했고, 281명(34.9%)의 응답자들이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반면 160명(19.9%)의 응답자들이 ‘잘모르겠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가 383명(47.6%), ‘그렇다’ 가 341명(42.4%)으로 대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90%)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 인간의 사망 시 일어나는 일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인간의 사망 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2-3> 인간의 사망 시 일어나는 일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죽음 의 이유	유효 전혀아니다	17	2.1	2.1	2.1
	아니다	65	8.1	8.1	10.2
	잘모르겠다	177	22.0	22.0	32.2
	그렇다	303	37.6	37.6	69.8
	매우그렇다	243	30.2	30.2	100.0
	합계	805	100.0	100.0	
십자가 희생	유효 전혀아니다	9	1.1	1.1	1.1
	아니다	6	.7	.7	1.9
	잘모르겠다	62	7.7	7.7	9.6
	그렇다	247	30.7	30.7	40.2
	매우그렇다	481	59.8	59.8	100.0
	합계	805	100.0	100.0	
영육 의 분리	유효 전혀아니다	7	.9	.9	.9
	아니다	10	1.2	1.2	2.1
	잘모르겠다	175	21.7	21.8	23.9
	그렇다	295	36.6	36.7	60.6
	매우그렇다	317	39.4	39.4	100.0
	합계	804	99.9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합계	1 805	.1 100.0		
천국 의 확신	유효 전혀아니다	23	2.9	2.9	2.9
	아니다	85	10.6	10.6	13.4
	잘모르겠다	100	12.4	12.4	25.8
	그렇다	245	30.4	30.4	56.3
	매우그렇다	352	43.7	43.7	100.0
	합계	805	100.0	100.0	

인간이 죽게 된 이유가 아담의 죄 때문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243명(30.2%)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했고, 303명(37.6%)의 응답자들이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반면 259명(32.2%)의 응답자들이 ‘잘 모르겠다’ 혹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728명의 응답자(90.5%)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죽을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317명(39.4%)의 응답자들이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했고, 295명(36.6%)이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반면 ‘잘 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가 각각 21.7%, 1.2%, 0.9%로 부정적인 응답이 2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가는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52명(43.7%),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45명(30.4%), '잘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00명(12.4%),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85명(10.6%), 그리고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3명(2.9 %)으로 나타났다.

4) 도덕의 기초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도덕의 기초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2-4> 도덕의 기초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도덕 의 차별성	유효 전혀아니다	17	2.1	2.1	2.1
	아니다	119	14.8	14.8	16.9
	잘모르겠다	250	31.1	31.1	48.0
	그렇다	250	31.1	31.1	79.0
	매우그렇다	169	21.0	21.0	100.0
	합계	805	100.0	100.0	
도덕 의 중심 기준	유효 전혀아니다	6	.7	.7	.7
	아니다	31	3.9	3.9	4.6
	잘모르겠다	184	22.9	22.9	27.5
	그렇다	300	37.3	37.3	64.7
	매우그렇다	284	35.3	35.3	100.0
	합계	805	100.0	100.0	
절대 가치 필요성	유효 전혀아니다	25	3.1	3.1	3.1
	아니다	75	9.3	9.3	12.4
	잘모르겠다	242	30.1	30.1	42.5
	그렇다	293	36.4	36.4	78.9
	매우그렇다	170	21.1	21.1	100.0
	합계	805	100.0	100.0	
죄의 결과	유효 전혀아니다	19	2.4	2.4	2.4
	아니다	93	11.6	11.6	13.9
	잘모르겠다	181	22.5	22.5	36.4
	그렇다	287	35.7	35.7	72.0
	매우그렇다	225	28.0	28.0	100.0
	합계	805	100.0	100.0	

기독교와 세상의 도덕 개념이 차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69(21%),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50명(31.1%)으로 전체 5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50명(31.1%),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19명(14.8%),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7명(2.1%)로 부정적인 응답이 48%였다.

도덕의 중심과 기준이 하나님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가 284명(35.3%),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00명(37.3%)이었다 반면, '잘 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각각

184명(22.9%), 31명(3.9%), 6명(0.7%)으로 나타났다.

이 세상에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170명(21.1%)와 ‘그렇다’가 293명(36.4%)이었다. 반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242명(30.1%), ‘아니다’가 75명(9.3%), ‘전혀 아니다’가 25명(3.1%)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42.5%였다.

이혼, 물질주의, 동성애 등 현대사회의 문제들이 죄의 결과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25명(28.0%),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87명(35.7%)으로 전체 6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81명(22.5%),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93명(11.6%),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9명(2.4%)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36.5%였다..

5) 인간 역사의 의미에 대한 실태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인간 역사의 의미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2-5> 인간 역사의 의미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아담의 실제성	유효				
	전혀아니다	8	1.0	1.0	1.0
	아니다	18	2.2	2.2	3.2
	잘모르겠다	183	22.7	22.7	26.0
	그렇다	310	38.5	38.5	64.5
	매우그렇다	286	35.5	35.5	100.0
	합계	805	100.0	100.0	
역사의 진행	유효				
	전혀아니다	17	2.1	2.1	2.1
	아니다	93	11.6	11.6	13.7
	잘모르겠다	234	29.1	29.1	42.7
	그렇다	230	28.6	28.6	71.3
	매우그렇다	231	28.7	28.7	100.0
	합계	805	100.0	100.0	
하나님의 계획목적	유효				
	전혀아니다	8	1.0	1.0	1.0
	아니다	13	1.6	1.6	2.6
	잘모르겠다	95	11.8	11.8	14.4
	그렇다	315	39.1	39.1	53.5
	매우그렇다	374	46.5	46.5	100.0
	합계	805	100.0	100.0	

역사의 의미와 관련하여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임을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가 286명(35.5%),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10명(38.5%)로 총 596명(74.0%)이었다. 반면 ‘잘 모르겠다’가 183명(22.7%), ‘아니다’가 18명(2.2%),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8명(1.0%)로 총 209명(25.9%)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61명(57.3%)이었다. 반면

‘잘모르겠다’ 혹은 ‘아니다’,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는 명(42.8%)이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들(86.6%)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다.

6)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실태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2-6> 종말과 재림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종말 의 두려움	유효 전혀아니다	119	14.8	14.8	14.8
	아니다	132	16.4	16.4	31.2
	잘모르겠다	126	15.7	15.7	46.8
	그렇다	277	34.4	34.4	81.2
	매우그렇다	151	18.8	18.8	100.0
	합계	805	100.0	100.0	
재림 의 확신	유효 전혀아니다	8	1.0	1.0	1.0
	아니다	13	1.6	1.6	2.6
	잘모르겠다	121	15.0	15.0	17.7
	그렇다	292	36.3	36.3	54.0
	매우그렇다	370	46.0	46.0	100.0
	합계	804	99.9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합계	1 805	.1 100.0		
천국 의 소망	유효 전혀아니다	8	.9	.9	.9
	아니다	11	1.4	1.4	2.2
	잘모르겠다	60	7.5	7.5	9.7
	그렇다	263	32.7	32.7	42.4
	매우그렇다	463	57.5	57.6	100.0
	합계	804	99.9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합계	1 805	.1 100.0		

종말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51명(18.8%),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77명(34.4%)으로 전체 53.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26명(15.7%),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32명(16.4%),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19명(14.8%)으로 종말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거나 느끼지 않는 응답자가 377명(46.9%)였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62명(82.3%)이었다. 반면, ‘잘모르겠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42명(17.6%)이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90.2%)들이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라고 대답하였다.

7)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실태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가운데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2-7> 삶에서 신앙의 표현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예수님의 도우심	유효	전혀아니다	7	.9	.9	.9
		아니다	17	2.1	2.1	3.0
		잘모르겠다	71	8.8	8.8	11.8
		그렇다	298	37.0	37.0	48.8
		매우그렇다	412	51.2	51.2	100.0
		합계	805	100.0	100.0	
죄책감	유효	전혀아니다	14	1.7	1.7	1.7
		아니다	26	3.2	3.2	5.0
		잘모르겠다	122	15.2	15.2	20.1
		그렇다	380	47.2	47.3	67.4
		매우그렇다	262	32.5	32.6	100.0
		합계	804	99.9	100.0	
	결측 합계	시스템결측값	1	.1		
	합계	805	100.0			
기도 응답 경험	유효	전혀아니다	49	6.1	6.1	6.1
		아니다	102	12.7	12.7	18.8
		잘모르겠다	215	26.7	26.7	45.5
		그렇다	242	30.1	30.1	75.5
		매우그렇다	197	24.5	24.5	100.0
		합계	805	100.0	100.0	
성령 의 동행	유효	전혀아니다	13	1.6	1.6	1.6
		아니다	31	3.9	3.9	5.5
		잘모르겠다	308	38.3	38.3	43.7
		그렇다	298	37.0	37.0	80.7
		매우그렇다	155	19.3	19.3	100.0
		합계	805	100.0	100.0	
소명 및 책임 의식	유효	전혀아니다	11	1.4	1.4	1.4
		아니다	25	3.1	3.1	4.5
		잘모르겠다	221	27.5	27.5	31.9
		그렇다	326	40.5	40.5	72.4
		매우그렇다	222	27.6	27.6	100.0
		합계	805	100.0	100.0	

예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응답자(88.2%)들이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이 642명(79.7%)이었다. 반면, ‘잘모르겠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들은 전체 162명(20.1)으로 나타났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97명(24.5%),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42명(30.1%), ‘잘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15명(26.7%),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02명(12.7%),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9명(6.1%)으로 부정적인 응답자가 366명(45.5%)이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동행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453명(56.3%)의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 와 ‘그렇다’ 라고 대답했다. 반면, 352명(43.8%)의 응답자들이 ‘잘모르겠다’ , ‘아니다’ ,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과 그 소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22명(27.6%),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26명(40.5%)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21명(27.5%),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5명(3.1%),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1명(1.4%)으로 부정적인 응답자가 257명(32%)이었다.

3. 종교 및 사상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종교 및 사상에 대한 인식의 실태는 다음과 같다.

<표 3> 종교 및 사상에 대한 인식

		빈도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이슬람	유효				
	전혀아니다	82	10.2	10.2	10.2
	아니다	85	10.6	10.6	20.7
	잘모르겠다	403	50.1	50.1	70.8
	그렇다	177	22.0	22.0	92.8
	매우그렇다	58	7.2	7.2	100.0
	합계	805	100.0	100.0	
뉴에이지	유효				
	전혀아니다	171	21.2	21.2	21.2
	아니다	118	14.7	14.7	35.9
	잘모르겠다	405	50.3	50.3	86.2
	그렇다	76	9.4	9.4	95.7
	매우그렇다	35	4.3	4.3	100.0
	합계	805	100.0	100.0	
막시즘	유효				
	전혀아니다	132	16.4	16.4	16.4
	아니다	94	11.7	11.7	28.1
	잘모르겠다	421	52.3	52.3	80.4
	그렇다	112	13.9	13.9	94.3
	매우그렇다	46	5.7	5.7	100.0
	합계	805	100.0	100.0	

기독교 세계관	유효	전혀아니다	49	6.1	6.1	6.1
		아니다	66	8.2	8.2	14.3
		잘모르겠다	315	39.1	39.1	53.4
		그렇다	260	32.3	32.3	85.7
		매우그렇다	115	14.3	14.3	100.0
		합계	805	100.0	100.0	

이슬람 교리의 문제점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58명(7.2%),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77명(22.0%)으로 전체 2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03명(50.1%),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85명(10.6%),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82명(10.2%)으로 부정적인 응답자는 570명(70.9%)이었다.

뉴에이지 교리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5명(4.3%),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76명(9.4%)으로 전체 1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05(50.3%),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18명(14.7%),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71명(21.2%)으로 부정적인 응답자가 694명(86.2%)이었다.

마르크스 사상의 문제점에 대해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6명(5.7%),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12명(13.9%)으로 전체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21명(52.3%),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94명(11.7%),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32명(16.4%)으로 부정적인 응답자가 647명(80.4%)이었다.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15명(14.3%), ‘그렇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260명(32.3%)으로 전체 4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모르겠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315명(39.1%),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6명(8.2%), ‘전혀 아니다’ 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49명(6.1%)으로 부정적인 응답자가 420명(53.4%)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독교 고등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 그것을 통해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세계관 함양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세계관에 관련된 문항을 만들고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의 일반적 배경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의 기독교세계관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고등학교 1학년이 44.8%, 2학년이 33.5%, 3학년이 21.6%이었다. 학년이 올라 가면서 수가 줄어 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3학년의 경우 1학년에 비해 그 수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의 입시제도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별과 관련해서는 남자가 385명으로 47.8%이고 여자는 419명으로 52.1%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남자보다는 여자 성도들이 더 많은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세례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는 세례를 받은 사람이 657명으로 81.6%였고, 또한 신앙경력에 있어서는 모태신앙이 59.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태신앙을 포함해 신앙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가 82.6% 였다. 세례의 유무와 신앙경력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고 볼 때 신앙경력이 3년 이상인 인원수와 세례를 받은 수가 매우 비슷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신앙생활을 초등학교부터 시작한 경우가 73%가 넘고 모태신앙이 60%정도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어릴 때 신앙과 부모의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교단이 90%이상이 장로교단인 것은 설문지를 돌린 분들의 교회 교단이 전부 장로교였기 때문에 설문의 대상자들 대부분이 장로교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의 기독교세계관 실태

첫째,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 대한 실태는 하나님의 자존성(79%), 세상의 시작(90.3%), 만물의 근원(90.3%), 창조의 계속성(76.2%), 만물의 존재목적(84.3%) 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이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회교육에서 창조에 대한 부분이 잘 교육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조의 계속성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조의 계속성에 대한 교육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실태에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80%정도가 잘 알고 있었으나 20%정도의 학생들이 그 기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설문에 응한 학생들의 신앙경력이 1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인 학생들이 25.7%인 것을 고려할 때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진화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응답자 대부분(90%)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사망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는 죽음의 이유(67.8%), 십자가 희생(90.5%), 영육의 분리(76%), 천국의 확신(74.1%) 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육의 분리나 천국의 확신에는 응답자의 사분의 일 정도가 확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삼분의 일이 넘는 응답자가 원죄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원죄에 대한 이해는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 교육에 문제가 있거나 교육에 있어서 죄의 문제를 가볍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도덕의 기초에 대한 실태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도덕의 차별성(52%), 도덕의 중심기준(72.6%), 절대가치의 필요성(57.5%), 죄의 결과(53.7%) 등으로 나타났다. 도덕의 중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자가 72.6%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 주었다. 그 외의 도덕의 기초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반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앞에서 질문한 창조의 시작과 의미,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사망 시에 일어나는 일 등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주의를 지향하고 절대성을 부정하는 오늘날 사회의 풍조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특성상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그 미디어가 대중문화를 포함하며, 대중문화는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은실(2008:62)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문화에 대해 대중매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과 같은 맥락이다.

다섯째, 인간 역사의 의미에 대한 실태에서 아담의 실재성(74%), 역사의 진행(57.3%), 하나님의 계획 목적(85.6%) 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아담의 실재성은 창조 부분에서 다루어지는 것이며 이것은 신앙의 기초적인 부분이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응답자의 사분의 일이 부정적으로 답을 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경력으로 볼 때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믿음과 머리로 아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며 인본주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인본주의의 뿌리에 깔려 있는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다른 일이며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대체로 진화론적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계획과 목적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하여 인간 존재에 대한 유의미성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종말과 재림에 대한 실태에서 종말의 두려움(53.2%), 재림의 확신(82.3%), 천국의 소망(90.3%) 등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재림의 확신이나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신앙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고 응답한 자가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현상은 신앙적인 측면보다는 응답자들이 모두 젊기 때문에 죽음이나 지구의 종말은 자신들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실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88.2%),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79.7%), 기도응답경험(54.6%), 예배 시 성령의 동행에 대한 느낌(56.3%), 구원받은 자로서 소명과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68.1%) 등으로 나왔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지 않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예배 시에 성령의 동행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교회교육(특히 장로교)이 교리에 치중하는 한편, 삶에서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결과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구원 받은 자로서의 소명과 그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68.1%인데, 이는 신앙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가 66.6%인 것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것은 신앙경력이 10년 이상 되어야 소명의식도 생기며 이것에 대한 책임의식도 생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명을

주시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소명의식과 그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은 신앙경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의 다른 종교 및 사상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의 다른 종교 및 사상에 대한 인식의 결과는 이슬람에 대한 인식(29.2%), 뉴에이지에 대한 인식(13.7%), 막시즘에 대한 인식(19.6%), 그리고 기독교세계관에 대해 들어 본 일이 있는가(46.6%)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이 이슬람이나, 특히 뉴에이지, 그리고 막시즘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나 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늘날 이슬람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2009년 웨 선교부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2025년 유럽 어린이의 3분의 1이 이슬람이 될 것이며 2050년 미국민의 5000만이 이슬람이 될 것이라는 보고가 있음), 오늘날의 영화나 음악이 뉴에이지 사상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으며, 오늘날의 물질주의 만능이 막시즘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David A. Noebel, 2006: 111-114)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교육은 매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독교세계관에 대해 들어 본 청소년보다 들어보지 못한 청소년들이 더 많았다. 응답자들이 창조의 시작과 의미,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사망 시 일어나는 일, 인간 역사의 의미, 도덕의 중심기준의 필요성 등이 기독교세계관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응답을 한 것과는 맞지 않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들이 기독교세계관이란 용어와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성은실(2008: 6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앙경력이 5년 이상인 학생들이 80%를 넘고 있었는데 이는 새 신자들이 많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위한 전도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일반적으로 교리적인 질문에는 대부분 매우 긍정적인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교회학교에서의 교육이 교리중심적이고 삶의 적용부분이 약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리에 치우친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전반적인 교리에 관한 질문에서는 긍정적인 응답이 나온 반면 도덕의 기초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절반을 웃도는 수준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나왔다. 이는 학생들이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응답자들이 진화론과 포스트모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한 교육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난 성경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는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넷째, 응답자들 대부분이 뉴에이지나 막시즘, 그리고 이슬람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기독교세계관이란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와 그 내용에 대한 교육이 성경 교육과 연결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기용(2008).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는 초등과학 교재개발 연구: 초등4학년 식물단원을 중심으로. 한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지(2008).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부모교육이 기독교 부모들의 세계관 인식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신아(2009).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기독교 미술 연구: 운보 김기창의 삶과 회화세계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순애(2010).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유아교육과정: 제7차 유치원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박남애(1993). 교회 청소년의 세계관 조사연구: 서울지역 고등학생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금옥(2001). 교회 고등부 학생들의 기독교세계관 교육에 대한 연구: 창조론을 중심으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은실(2008). 교회청소년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광석(2004). 세계관 학교를 통한 기독교적 세계관 확립과 이원론적 사고방식의 극복: 원당반석교회를 중심으로.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환(2009). 종교다원주의 사회의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 개발.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2008). 기독교 세계관을 지향하는 기독교초등학교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신일(2005).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대안교육의 본질과 방향. 고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기옥(2002). 기독교 교육을 통한 기독교 세계관 실태조사: 안산동산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희승(2010). 개혁교회 청소년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과정 개발 연구. 안양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경희(2002). 교회학교 영유아부의 역할을 위한 기독교인 부모의 세계관. 총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진선(2004). 정통개혁주의 신학에서 본 기독교 세계관 운동평가.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정훈(2003).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의 역할.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Noebel, David A.(2006), *Understanding the times*, Colorado: Summit Press.
- Sire, James W. *The Universe Next Door*,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김헌수 역, 서울: IVP, 1995